

배움, 만남, 그리고 약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맹현규

< 목 차 >

- I. 들어가며: 참여 동기와 기대
- II. 2019 헤이그 국제사법 아카데미 강좌
 - 1. 특별강의: EU Law and Comparative Law
 - 2. 정규강의
- III. 강좌 이외의 프로그램
 - 1. 대사관 견학; 한국 대사관
 - 2. 다양한 국제조직 견학; HCCH, Eurojust
 - 3. 평화궁 견학
- IV. 하나의 세계: 만남, 교류 그리고 기억
- V. 생활
 - 1. 숙소
 - 2. 날씨
 - 3. 생활 및 아카데미 관련 TIP
- VI. 나가며: 한여름 밤의 꿈

I. 들어가며: 참여동기와 기대

대학교 학부에 들어와서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한 발씩 그 꿈에 다가가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해가는 과정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나, 국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에도 벅찬 3년을 보내야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하는 중에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체류비 및 수강료 등 현실적인 문제들의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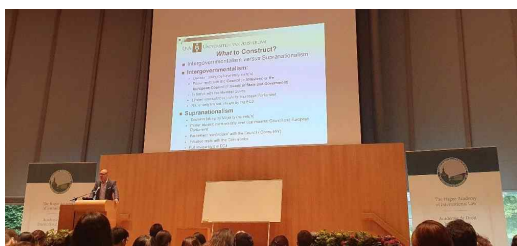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국제강좌 수강을 지원해주는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의 유민펠로우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해주는 국제강좌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헤이그 아카데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매년 전 세계 학생, 실무가 등이 모여 명망 있는 교수님들과 실무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유민펠로우십에 지원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재단에서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2019 헤이그 국제사법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II. 2019 헤이그 국제사법 아카데미 강좌

1. 특별강의: EU Law and Comparative Law

처음에 아카데미 강좌를 신청할 때 각 25유로에 2개의 특별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EU법에 관련한 강의였고, 다른 하나는 비교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European Union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European Committee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 현재는 정치적 공동체로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랬기에 EU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신청하였고, 강의 또한 EU법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난이도로 강의를 해주셔서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법은 제가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며 기초를 쌓고 들어서인지 EU법보다는 수강하기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법이라는 과목이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법은 각국의 개별법이나 판례 등으로 각국의 법체계를 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숙이 들어간다면 해당법에는 각국의 문화, 특성이 스며들어있기에 정답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교수님의 PPT정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크게 법들을 정리한다면 Civil Law, Common Law, Asian Laws, Religious Laws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시며 Asian Laws의 특성으로 소송재판보다는 조정 등과 같은 대체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를 소개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유롭게 비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Asian Laws를 소개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었겠으나 현재로서는 적용하기 힘든 분류방식이라는 비판을 학생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송의 증가로 보았을 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분류는 큰 Asia를 하나의 법특성으로 묶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좋았던 점은 교수님께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사이로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고 수업에 관련한 피드백을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교수님 또한 매우 열린 자세로 학생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적인 학문의 교류 속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U Law의 강의모습



Comparative Law의 강의 시작 전 모습

2. 정규강의

토요일에 헤이그에 도착한 후, 일요일 EU Law 수업을 수강하고 월요일이 되어 정규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의 정규강의는 8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명의 교수님께서 헤이그 아카데미의 개최 강의를 하십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Gary BORN 변호사님이

‘국제중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주 3명의 교수님들이 오전동안 General Course라는 Mandatory Course를 담당하셨습니다. 1분의 교수님만 2주에 걸쳐 수업을 하셨으며 이번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사법과정에서는 파리 Sciences Po 로스쿨의 Diego P. FERNANDEZ ARROYO 교수님께서 “국제사법의 진보적 탈국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각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2시간짜리 세미나를 가졌고 학생들의 참석은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세미나들 중간에 HCCH(Hague Conference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에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모든 강의 및 기관과 관련한 수업들을 들으려고 해서 세미나를 포함해 모든 수업에 개근하였습니다.



FERNANDEZ
ARROYO 교수님
의 마지막 강의

많은 강의들이 기억에 남고 모든 강의들이 좋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여 몇몇 강의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려 했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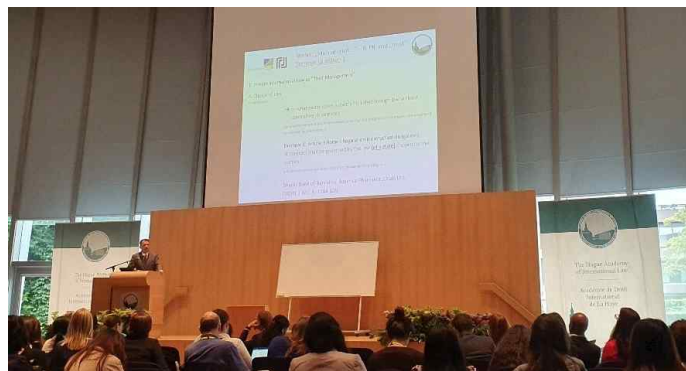
Inaugural Lecture를 해주신 Gary BORN 변호사님은 2017년 국제상사모의재판대회를 준비하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변호사님의 책을 계속 다루었기에 이름은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강단 위에서 변호사님의 책에서 보았던 5Es (Efficiency, Expeditious, Expert, Evenhanded, Enforceable)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헤이그 아카데미에 있구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책을 읽으며 느꼈던 변호사님의 국제중재에 대한 믿음을 강의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중재가 세계화되는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미래는 아직 미지의 세계일뿐이라며,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강의였지만 제게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준 강의였습니다.



BORN 변호사
님의 강의

이외에 기억에 남는 강의로 첫 주에는 “Mutual Trust; A Suitable Foundation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Regional Integration Communities and Beyond”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던 Matthais WELLER교수님과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Unified Patent Court”를 강의해주신 Manuel DESANTES REAL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교수님께서서는 정말 상반된 강의스타일을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WELLER교수님은 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수업이었다면, DESANTES REAL교수님은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수업이었습니다. WELLER 교수님의 수업은 제목 그대로 ASEAN, CEMAC, EU 등 지역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관 내 국가들에서 국제사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강의하셨습니다. EU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공동체를 통해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강의 스타일은 모든 것이 PPT에 정리되어 있었으며, 교수님은 거기에 조금씩 추가해가며 말씀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따라가고 이해하기는 정말 편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DESANTES REAL 교수님께서서는 PPT를 기반으로 하지만 많은 것을 더 얹어서 강의하셨고 학생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수업하셨습니다. 수업의 내용이 제게 정말 어려웠고 프랑스로 진행되었기에 강의를 많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허라는 행위의 특성상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법원의 필요성은 강의를 들으며 공감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특허방식과 법원이 따로 있는 경우 세계화되고 정보의 흐름이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 각각의 특허소지자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Unified Patent Court에서는 공동특허법원으로 특허소지자의 보호에 더 특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기에 아직 발전될 필요성이 있으나 그 필요성과 가능성만큼은 확실하기에, 흥미로웠던 강의였습니다.



WELLER 교수
님의 강의

둘째 주에는 “The Powers of the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강의해주신 Yas BANIFATEMI 변호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강의 경우 친구들과하고 이야기할 때 호불호가 매우 갈렸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PPT나 자료없이 앉아서 꼭 설명해주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었으나, 내용이 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였고 변호사님께서 큰 목차가 바뀔 때마다 강조를 하며 이야기하셔서 따라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중재인의 권위와 권력을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리고 중재인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중재인과 관련된 쟁점들, 정보들을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강의가 WELLER 교수님처럼 조금 더 구조화되어 있고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정말 경험 많은 변호사님께 국제중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BANIFATEMI 변호사님의 강의

마지막 주에는 Eduardo SILVA ROMERO 교수님(이자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신 “Legal Fic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이라는 수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는 강의 방식이 특별하거나 PPT가 특별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국제중재 시스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수업은 그 주제만으로도 재밌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BORN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국제중재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연 정말 국제중재가 가격경쟁력이 있을까, 과연 국제중재가 언제나 중립적일 수 있을까 등 기본적인 면서도 국제중재를 배우며 당연하듯이 배워온 개념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반박 근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강의 내용도 강의 내용이었지만, 예비 법조인으로서 정말로 배워야 할 자세를 배웠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여기에 쓰진 않았어도 모든 강의들이 나름대로 모두 재미있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억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의 각자의 모든 강의가 끝날 때 함께 사진을 찍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콜라주 사진에는 기관관련 강의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고, 학생들과 토론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답해주셔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 덕분에 헤이그 아카데미가 더욱더 빛날 수 있었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Ⅲ. 강좌 이외의 프로그램

1. 대사관 견학; 한국 대사관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1번의 대사관 견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견학을 하나 선택하러 했을 때, 국제법의 수도인 헤이그에서 대한한국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큰 고민 없이 한국대사관 견학을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 대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함께 대사관에 도착해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PPT 강의를 듣고 여러 영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을 받고 끝냈었는데, 국제 정치의 중심에 있는 한국을 소개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친구들이 한국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들에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일본인 친구와는 최근 WTO에 제소되기까지 한 한일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개인 대 개인이지만 두 국가가 조금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대사관 견학
기념사진:)

2. 다양한 국제조직 견학; HCCH, Eurojust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에 국제사법과목을 들으며 헤이그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과목의 교수님이셨던 장준혁 교수님께 헤이그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여러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고, 강동원 판사님께서 파견되셨던 HCCH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HCCH가 어떤 기관인지도 몰랐지만, 한국 법원에서 판사가 파견될 수 있고 국제사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관심이 가서 우선적으로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HCCH는 국제사회에서 쓰이는 조약이나 법의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제사법에 치중하여 보통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큰 회의에는 여러 국가에서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과 토의를 진행하는데, 그게 이번 7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제중재에 관해 공부하고 모의재판대회에 나가며 UNCITRAL이나 UNIDROIT와 같은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통상법 등에 관해 모델법들을 만들어간다고 알고 있어 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는 세 기관들이 긴밀하게 만나며 더 연구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조하기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UNCITRAL Model Law와 UNIDROIT Model Law를 사용했었는데 이 기관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기관끼리는 어떻게 겹치지 않게 일해 나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HCCH 사무실
앞에서

Eurojust는 운이 좋게 견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Eurojust가 가고 싶었으나 다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여 다 찬 상태였으나, 어쩌다 견학신청란에서 1명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데스크로 가서 신청하였습니다. Eurojust가 다루는 사법협력체계와 관련해서 간략히만 알고 있었지만, EU라는 경제공동체 내의 사법협력체계와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기에 가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생각으로 갔으나 처음에는 건물과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잠시 정신을 팔기도 했습니다.) Eurojust는 크게는 국가 간 사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EU국가 간에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기에 사람이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한 나라 안에서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A국가에서 B국가 국민이 C국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U 전체 범죄율의 하락을 목표로 조직범죄 및 수사, 국가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교류가 많은 국가 간에 이러한 국제기관이 있는 것이 수사 등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있으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간에 조약을 통해 국제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동아시아 사법협력의 큰 발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Eurojust 로비에서:)



함께 견학한 친구들과 함께한 단체사진!!

3. 평화궁 견학

헤이그 아카데미를 가게 되면 첫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평화궁이라 불리는 건물로 1913년에 준공식을 하여, 현재 100년이 넘었고, 미국 철강의 아버지였던 앤드류 카네기가 자금을 지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카네기재단이 안에 있으며, 이를 포함해 5개의 기관이 평화궁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 평화궁 도서관(Peace Palace Library),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들은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가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평화궁 안은 사무실로 쓰이기에 투어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대도 다양하게 지원해줘서 좋았습니다.

평화궁 안은 따로 사진을 찍을 수 없어 아쉽게도 사진을 이 보고서에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보면 웅장함에 감동을 받고, 건물에 대해 잘 모름에도 유럽에서 다닌 건물들 중에서도 손꼽힐만한 건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2015년 즈음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쁜 재앙을 물리치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해치를 기부하였는데 이를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였습니다. 과거 1907년 평화궁의 시공식이 있었던 해, 헤이그에서 제2차 세계만국평화회의에는 이준 열사를 포함해 이상설, 이위중 특사는 참석조차 하지 못한 채 광장에서 연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어 그 아픈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국력과 외교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해치가 평화궁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를 가면 맨 처음 반겨주는 평화궁의 앞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평화궁 뒷모습입니다.

IV. 하나의 세계: 만남, 교류 그리고 기약

3주간 헤이그에 머물면서 법조계에 계신 한국 분들을 뵙고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헤이그에서 이렇게나 많은 법조계의 선배님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랐었지만, 직접 뵙고 좋은 말씀들도 들을 수 있어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사법 교수님으로 계시는 장준혁 교수님의 소개로 HCCH에 파견된 강동원 판사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강동원 판사님을 뵈고 헤이그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으며, 견학을 갔던 HCCH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여쭙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사법과정엔 저를 포함하여 4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 2분과 여러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효정 판사님과는 수강하면서 식사도 함께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인 제게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신동석변호사님은 미국변호사로서 국제중재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계셨기에, 변호사님과 이야기하며 해외 L.L.M.과정 등에 대해서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견학을 마친 후 국제사법 과정에 수강 중인 한국인들을 따로 부르셔서 좋은 식사자리를 만들어주신 모성준 판사님과, 함께 안병철 부장검사님을 뵈고 헤이그의 생활 및 한국의 법조인으로서 헤이그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재판관 중 한 분으로 계신 정창호재판관님을 뵈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법원의 재판관으로 계시면서 재판관님께서 재판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듣고는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훗날에 국제사회에 나가 한국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3주간의 헤이그 아카데미를 마쳤습니다.



ICC 정창호 재판관님과 ICC 내에서:)

V. 생활

1. 숙소

아카데미 쪽에서 지원해주는 숙소로는 스코텔(Skotel)이라는 준호텔과 홈스테이 2가지가 있습니다. 스코텔은 다른 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텔은 호텔 관련 학교의 지원 아래 호텔리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곳이기에 낮은 가격에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명에서 한 방을 사용하며 한 방에는 칸막이는 되어 있으나 완전히 분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은 4명이 1개를 사용하고, 부엌은 8명에서 하나를 사용합니다. 저는 홈스테이에 묵었으나, 1주차가 지나고 스코텔의 친구들과 친해져서 매일 스코텔에서 저녁을 함께 해 먹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스코텔의 가장 큰 장점은 스베닝겐 해변과 가까워 저와 같이 노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짧게 산책을 나갔다 오는 것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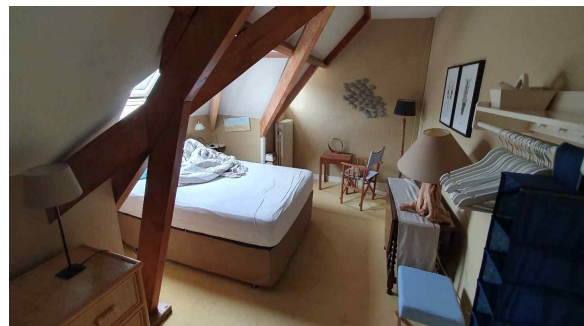
제가 선택했던 홈스테이는 조금 비싸지만 소수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네덜란드 가족의 삶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홈스테이는 아카데미 측에 연락하여 홈스테이를 지원하다고 하면,

아카데미 측에서 홈스테이가 가능하다고 한 가족들과 지원자들을 연결해줍니다. 제가 3주간 함께한 집은 평화궁으로부터 도보로 25분이라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었지만, 걷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평화궁까지 항상 걸어다녔습니다. 스코텔은 1박 당 20유로인 반면, 홈스테이는 1박 당 25유로입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개인공간이 보장되고, 숙박일이 유연하다는 점이 좋은 점 같습니다. 저는 본 아카데미를 듣기 하루 전에 특별강좌를 신청하여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헤이그에 도착했는데, 스코텔을 신청한 친구들의 경우는 따로 숙소를 잡아 하루를 다른 곳에서 묵고 다음 날 스코텔로 들어갔습니다. 본 강좌가 끝나고 나서도 같이 묵었던 친구는 헤이그에서 일주일 더 머물렀는데, 그대로 홈스테이에서 같은 가격을 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가족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애매한 위치와 부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치의 경우는 홈스테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엌의 경우는 대부분의 홈스테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나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요리할 때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학생들이 오븐이나 간단한 조리기구를 제외하고 따로 요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같이 오거나 친구와 같이 오는 경우는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하여 1달 간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고 함께하기에는 스코텔을 가장 추천하고, 조금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면 홈스테이나 에어비앤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홈스테이나 에어비앤비에 묵는다고 추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 늦게까지 함께하는 경우 끝까지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추천드립니다.



친구들과 즐거웠던 Skotel에서



체크아웃 전, 홈스테이에서 지낸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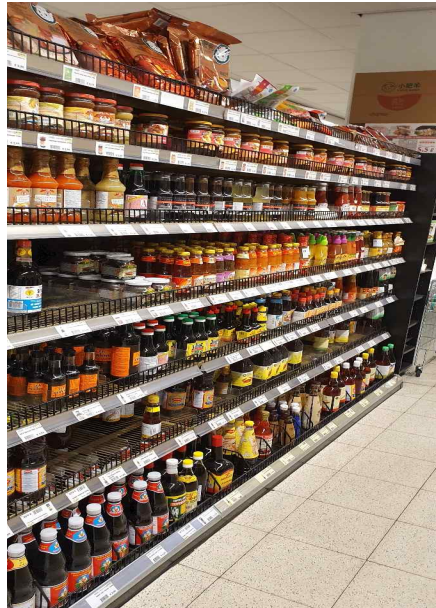
2. 날씨

한 단어로 헤이그의 날씨를 표현하자면 “변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는 북위 52도로 서울이 위치한 북위 37도보다 많이 위에 있어 평균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은 20도 내외로 7, 8월이었음에도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비교할 수 있었고, 해변가는 바람이 불어 쌀쌀했습니다. 보통 유럽나라들이 그렇듯 해는 저녁 9시에서 10시쯤 켜고, 이 이후에는 더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항상 우산과 겹옷을 따로 들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여름이라고 반팔 반바지만 챙기시지 마시고, 겹옷과 긴 바지 등을 챙기시면 생활하시기 더 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3. 생활 및 아카데미 관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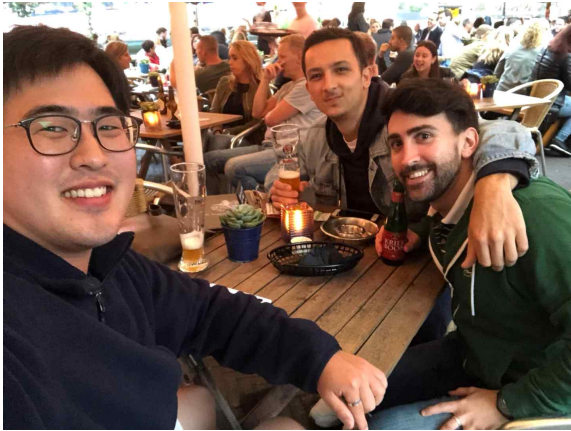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이 제목으로 한 문단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을 보는 곳으로 가장 유명한 체인은 Albert Hijn이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보통 AH라고 부르며, 네덜란드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마트처럼 가장 큰 마트체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사실 수 있는데, 사시기 전에 회원카드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원카드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됩니다. AH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물품들이 많은데, 이 물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는 할인카드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생각보다 식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시아 음식이 그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내로 나가셔서 Amazing Oriental Den Haag나 Kokoro Market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국식품 종류뿐만 아니라 아시아 음식 전부를 팔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비쌌습니다.) 저는 일본인 친구와 여기서 일본식 간장과 덴뿌라 분말을 사서 덴뿌라를 만들어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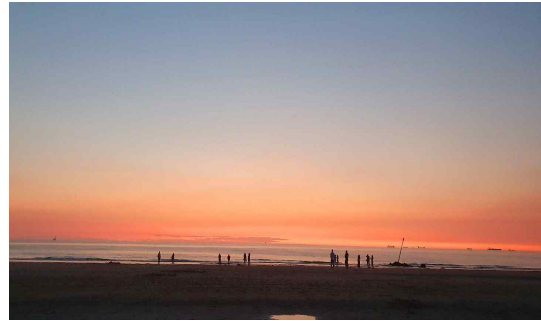


#정말 많은 향신료
가 있었던 아시안
마트였습니다.

수업 외에 친구들과 놀러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때 보통 가는 곳은 시내에는 Grote Markt라는 곳이 있고, 바다에는 Sheveningen Beach(스베닝겐 해변)으로 갑니다. Grote Markt는 노천 바들이 줄지어 있어서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술 한 잔하기에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 스베닝겐 해변은 아카데미에서도 Welcome Party나 중간에 있는 Beach Party가 열려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캠프파이어처럼 불을 피워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파도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한 잔 하거나 이야기하는 경험은 특별할 것입니다.



홈스테이 친구들과 함께한 Grote Markt:)



노을이 아름다운 Scheveningen Beach!!

수업을 들으시면 보통 오후 수업은 필수가 아니어서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습디만, 저는 모든 수업들을 들어보려고 했기에 주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궁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밖으로 나가 먹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평화궁에서 나가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작은 사거리에서 Cafe Blossom에 가곤 하는데, 여기 음식이 저와 맞지 않아서 다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Cafe Blossom에서 쪽 더 가시면 로타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당들 모두 괜찮은 것 같았으나, 제가 시도해본 식당은 Bite Me! 와 Room이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었으나(10유로 내외)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면 Cafe Blossom이 있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Ristorante Pizzeria La Lanterna라는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추천만 받고 먹어보진 못한 곳입니다. 가시는 분 중에 여기 가시게 되면 후기를 써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fe Blossom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평화궁 내 식당 외에 다른 곳을 가보고 싶다면 이런 곳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Room에서 먹은 스테이크 햄버거!!



Bite Me!에서 먹은 연어 샌드위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드리는 팁은 결국 아카데미에 도착하시면 금방 아실 수도 있을테지만, 우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2개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아카데미가 시작하면 40유로에 헤이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팝니

다. 헤이그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걸어 다니기에는 애매한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트램을 자주 타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트램을 타면 기본요금이 1유로가 넘게 나옵니다. 또한 주말에 근교로 여행을 가시면 Delft라는 곳으로 자주 가시는데, 여기는 헤이그에서 Tram 1을 타면 바로 갈 수 있어서 아카데미에서 파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왕복 12유로정도에 달하는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카데미에서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견학을 시켜주는데 보통 1인 1견학 (대사관 1회, 국제기구 1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시작 후 중간 중간에 메일 등을 보내줘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을 받은 후 쉬는 시간에 프린트에 가셔서 바로 지원을 하시면 더 많은 곳에 견학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 저의 경우도 HCCH를 지원했지만, 후에 Grotious Library Tour 와 Eurojust 견학을 더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Grotious Library Tour는 ICC 추가 지원과 함께 추첨으로 진행해서 운도 필요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많이 지원해보셔서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Grotious Library Tour 중



예쁜 Delft의 운하 거리

VI. 나가며: 한여름 밤의 꿈

2016년부터 1년 간 일본에서 수학하고 2017년 중재대회를 준비하며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순식간에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이 갖는 중요성도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하는 것도 알았으나 외국에서 국제법을 공부해보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에 수학할 때 어렵다면, 변호사시험을 본 후 나중에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부하러 가볼까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국제법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 형과 이야기하다 명망있는 헤이그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되었고, 그 기회를 얻어 국제법의 수도로 불리기도 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다녀왔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를 다녀온 지 1달이 지났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중에도 헤이그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야기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해외에서 국제법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와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계시는 선배들을 만나 제 인생과 미래의 경력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와 같은 3주간의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사법과정은 1년 반이 남은 제 법학전문대학원 기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여름 밤 꿈 같은 이 단 잠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이제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법” 전문가라는 제 목표를 향해 한 발 짝씩 나아가겠습니다. 귀중한 기회를 주신 홍진기 법률연구재단 이사단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